

인문학 캠프는 낭만적인 이름을 달고 있는 교육과정이지만 “차라리 논문을 두 번 쓰고 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교육과정입니다. 사람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고 흥미롭게 나의 관심사를 잡아 주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조금씩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학자라는 사람들이 연구라는 이름으로 해놓은 끝을 알 수 없는 지식의 그물망 속에 빠져듭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수 많은 관점과 해석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글로 옮기는 것과 설명하는 것이 각각 얼마나 다르고 서로 거리가 먼 일인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그것이 사실은 서로 따로 놀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읽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살피고, 살핀 내용들을 내 언어로 다시 번역하거나 재배치해 글로 옮겨보지만 써놓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렵게 어렵게 글을 완성해도 그것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밀도 높게 이 과정을 압축해 진행하는 인문학 캠프가 쉬울리 없습니다.

인문학 캠프가 끝나고 불과 1주일만 지나도 내가 발제한 내용의 50% 이상은 머리 속에서 증발해 버리고 한 달 뒤 10%만 남아도 다행인 이 일을 우리는 왜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조금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혹은 어떤 즐거움이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아령을 들었다 놔다 하면 팔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압축된 시간 속에서 생각의 근육들이 자리잡게 되어 이후 살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 살펴야 할 때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인문학 캠프가 17 양반 친구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앞날이 막막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나하고 세상은 안 맞는다고 느껴 손절하고 싶을 때... 공부합시다.

◎ 일정 및 장소

◎ 모듈별 활동 평가 + 참가자 평가 + 학년평가

1. 개신교- 개신교는 잘 계신교?

개신교는 잘 계신교? 모듬활동 평가

- 명민이의 발제문을 보고 4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민이 발제문의 주제인 ‘한국 개신교와 정치’로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4명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좁은 주제였고. 결국 ‘개신교’라는 주제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4명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했던 것은 보수 개신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주제 안에 개신교의 인식, 역사, 행동원인 등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
- 방학 때 필독서 1권을 읽고 승혁이네에서 합숙을 진행했습니다. 3월에 입교한 뒤에는 세미나를 진행한 뒤에 주로 인터뷰를 많이 다녔고, (평화나무, 김진호 목사, 이택규 목사, 정호쌤, 윤하쌤, 게릴라 인터뷰 2명) 논문 1개와 필독서 1권을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파트를 준비하며 공부하고, 계속 나누었습니다. 인문학 본 캠프 이주일 전에는 하은이네에서 모여 4박 5일 합숙을 진행하며 발제문을 열심히 작성하고 퇴고했습니다.
- 다 같이 나눈 필독서는 김용민, 『한국 개신교와 정치』와 김진호, 『시민 K, 교회를 나가다』였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는 첫 필독서였지만 개신교와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막상 읽어보니 책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현대의 이야기를 담아냈을 줄 알았으나 절반 이상이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시민 K, 교회를 나가다’는 우리의 지식이 더 쌓인 다음에 읽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현재의 교회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있어 우리의 발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배경 지식을 위해 다 같이 필독서를 읽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후에는 각자 맡은 발제에 집중했고 인터뷰는 2명씩 짝지어서 다녔습니다. 2명 안에서 한 명은 인터뷰를 진행했고, 한 명은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발표는 각자 맡은 발제문 파트대로 준비를 했고, 손 남는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 각자 우리가 알던 개신교-박선영,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오명민, 보수주의 개신교도들, 왜 그런대?-양승혁&이하은, 우리가 몰랐던 개신교-오명민,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하은으로 나누어져 먼저 써온 다음 우리 안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나누며 수정하고 퇴고했습니다.
- 발제문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ppt와 모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볼 수 있는 그룹 토의 시간도 기획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 했던 자료는 영상으로 만들어 모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게으름으로 인해 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고, 발표 준비도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아내고자 했던 메시지들은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10분 개신교 요약영상과 ppt 발표 위주로 진행되었고, 저녁에는 인터뷰 영상과 토크쇼, 그룹 토의 등 같이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9시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조금 길어졌습니다.

▶ 모둠원 평가

- 방학 중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갈피를 못 잡고 조금 해맸던 감이 있었다. 그래서 입교한 뒤에 열심히 달렸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발표의 자료나 내용이 조금 미흡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특히 보수주의 개신교도들, 왜 그런대? 파트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는다. 또한, 4명 다 너무 친해서 회의나 합숙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판짚이 이어지는 상황이 많았다.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지점이나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개신교는 잘 계신교? 참가자 평가

> 전체적으로 내용이 공감되었나요?

네 12 아니요 0 내용은 좋았지만 어려워서 집중이 잘 안 됐다. 1

> 발표를 듣고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나요?

네 5 아니요 3 특정 부분만 2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다. 1
 잘 모르겠다. 1 끝까지 보지 못해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지는 못한 것 같다. 1

> 발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매우 그렇다. 7 그렇다. 5 보통이다 1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0

> 발표를 들으면서 좋았던 점

- 인터뷰를 직접 해와서 생생한 느낌이 좋았다.
- 개신교에 대한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어 좋았다.
-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
- 종교가 지니는 의미를 같이 토론해서 좋았다.
- 진보적인 개신교의 성경해석
- 개신교를 보는 내 관점에 편견이 없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
- 영상이 적절히 섞여서 지루하지 않았다.
- 진보적인 교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관심이 생겼다.
- 시작과 끝에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생각 변화를 비교하기 좋았다.

> 발표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

- 말이 빨랐다.
- 발제 흐름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 설명하는 방식이 좀 더 재미있고 간단했으면.
- 보수 개신교와 관련된 인터뷰나 자료 분석이 다소 부족해 보였다.
- 토론활동이 더 많았으면
- 영상에 자막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 인터뷰 내용이 요약문으로라도 자료집에 있었으면.
- 종교인과 비종교인 서로의 목소리도 듣고 싶었다.
- 마이크 문제

>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오징어게임이나 전직 대통령 예를 들어 설명한 것
-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눠 종교를 정의한 것
- 개신교 소개 영상
- 교회 몰락 이유
- 동성애 혐오와 진보개신교의 성경해석(성경 내용에 흥미가 생겼고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교회에 갈뻔했다는 이야기
- 개신교인의 태도에 관한 목사님 인터뷰
- 없다.

> 추가로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 개신교가 변질되어진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 보수 개신교도의 입장이 발표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수고했어요!
- 개신교에 대하여 완전 부정에서 약간은 긍정으로 변했다.
- 개신교에 대해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었다.

개신교는 잘 계신교? 학년 평가

나 같은 경우는 절대 인문학 캠프의 첫 번째 순서로 발표하고 싶지 않았다. 인문학 캠프 준비 과정에서 다른 팀의 진행 상황은 잘 몰라서 별 기대 하지 않고 봤다. 근데 정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발표를 너무 잘했고 캠프의 시작을 잘 마무리 한 것 같다. 친구들 한명 한명의 발표도 귀에 잘 들어왔고 참가자와 같이 하는 종교 마인드맵 쓰기?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종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 캠프 전 가정학습의 4일을 합숙으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됐던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개신교라는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기에 친구들이 어떤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을 했다. 모듬끼리 너무 친해 회의 때마다 회의를 하는건지 노는건지 잘 모르는 분위기로 보였어서 조금의 걱정을 했다. 기숙사에서 승혁이와 명민이도 주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발표가 잘 되지는 않겠구나'는 생각을 했지만 본 발표 때는 이런 생각들이 나지 않게 너무나도 좋은 발표를 보여주었다. 내용이 어렵거나 지루할 때면 모듬활동이나 영상을 넣어서 집중력을 높여주었고, 대부분의 내용이 어렵지 않았기에 정말 재밌는 발표였다. 인문학캠프 첫 발표임에도 떨지 않는 모습으로 발표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선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서 흥미가 가능 주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 많이 기대 했던 주제 중 하나였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도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기대 했는데 그 내용은 없어서 살짝은 아쉬웠다. 처음에 개신교가 생겨난 이유에 대한 영상은 정말로 잘 만들어서 나중에 또 한 번 보고 싶다. 토론도 재미있어서 첫 스타트를 잘 끝어 준 것 같다.

마지막에 토크 콘서트도 좋았고, 참여형 프로그램도 나름 많아서 적당 했던 것 같다. 종교인과 비 종교인 나누는 것도 좋았지만, 나누지 말고 섞어서 이야기 해봤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개신교에 대한 편견을 깨 부시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차례 차례 설명하면서 정말 매끄럽게 이어져 놀랐고, 영상을 준비한 팀이라서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무교인 경우 종파에 대한 헛갈림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었다. 또한 종교를 꼭 편협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무교인 4명이서 팀을 꾸린 것이 완성을 높이지 않았나 싶다.

실제 목사를 대상으로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쪽 일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겉으로 전해져 들어보기만 했고 실제로는 접하지 못했고 무슨 내용인지조차 몰랐던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라서 좋았음. 성경 읽느라 힘들었겠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지루한 편이어서 토론활동을 비롯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다른 목사님들 인터뷰 한 영상이 재미있었다. 이 전까지는 개신교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나누어지는 지를 모르고 그냥 보수=이상한 시위하는 사람들, 진보=사회적 문제에 나서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냐에 따라 나뉜다는 게 새롭고 재밌었다.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마인드맵은 뻘한 이야기들만 나와 약간 지루했다.

늦게라도 주제 선정 과정에서 비종교인 (무교인) 4명이 모여서 개신교에 대한 의문을 풀어간다는 점이 의미 있고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객관적으로 완전한 무교인의 입장에서 보수주의 개신교도의 행동원인들을 분석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덧붙여 김디모데 목사님의 설명도 아주 쑥쑥 들어오고 재미있었음. 각자마다의 종교가 지니는 의미를 함께 나누

것도 아주 재밌었다. 종교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 이렇게나 다양한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다니.

아쉬웠던 점은 보수 개신교도/목회자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담긴 인터뷰 내용이 궁금했는데, 결국 '보수주의 개신교도들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설 위주로 설명이 되어 아쉬웠다. (전광훈 목사 인터뷰 실제로 못 탄 게 약간 아쉽...)

내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들이 막 극단적인 보수 교회 정도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었고 결국 교회에 대한 불편함이 어느정도 자리잡게 되었는데, 발제를 통해 처음으로 새롭게 진보적인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런 진보적인 교회들이 궁금해졌다. 교회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교회라면 다시 다녀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었다~

인문학 캠프를 하면 늘 나오던 주제 '종교'. 종교라는 주제는 자칫 잘못하면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개신교 팀이 2차례 합숙과 여러 명의 종교인 인터뷰, 많은 책과 논문을 읽고, 거기서 느낀 점,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점,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잘 끄집어냈으며, 재미있는 참여 프로그램과 영상으로 2022년 17학번 인문학 캠프의 멋진 개막식을 열었다. 발표를 보면서 그동안의 소고가 잘 보였으며, 개신교 팀의 의도와 맞게 잘 전달되었다. 준비 과정을 한 공간에서 함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개신교와 같은 종교의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개신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컸지만 약간 줄어들었다. 그 밖에 기독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잘 풀어낸 것 같다. 목사라던가, 지나가는 종교인 등을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재미있었다.

중간중간 프로그램도 있고, 딱 집중력이 떨어질때쯤 쉬는 시간이 있어서 재밌게 들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흥미로웠다. 결국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기에 목사가 본인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해석만으로 설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발제를 다 들은 후, 개신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거나 인식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다만, 보수 개신교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는 조금 이해하게 됐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정도.. 사실 단순히 개신교에 대한 생각보다는 종교 자체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마지막에 발제해준 것처럼 앞으로 종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안 좋다고만 들었던 한국의 개신교를 자세히 설명해주어 오해없이 개신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종교가 개신교인 인문학 캠프 참가자들도 불편함 없이 들을 수 있게 밸런스 조절을 잘한 것 같다.

인터뷰를 한게 진짜 좋았다. 한 종교 안에서 함께하는 당사자들의 생각을 투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 고맙다. 같은 개신교라도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개신교는 어쩌면 소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찍먹영상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웠다. 많은 이야기를 5분안에 함께 들으려니 힘들

었다. 개신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궁금했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신들도 이해를 못했다고... 고생했다

2. 인류진화 - 우리는 인싸여서 살아남았다

우리는 인싸여서 살아남았다 모둠활동 평가

철학적 인간학을 주제로 팀이 뭉쳐졌다. 관련 책을 읽고 두 차례 줌 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결과 조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사유는 자료 부족으로 너무 어렵기도 하였고, 캠프 당시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없어서였다.

인간이란 주제 안에서 재밌게 느껴지는 것을 찾다가 작년에 읽은 『사피엔스』가 떠올랐다. 사피엔스를 토대로 생물학적 인간에 대해 공부했다. 태초의 인류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여러 가설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 책의 중요 포인트인 ‘친화력’에서 각각 관심있는 주제를 뽑았다. 민혁이는 자기가축화, 재훈이는 혐오, 담이는 우생학으로 나눴고 그에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

입구를 한 후 어떻게 각자의 주제가 잘 이어지고, 친화력이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서로 함께 여러 회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개인주제의 방향을 정했다. 이후 각자의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공유를 했다. 서로의 주제에 대한 적은 공유와 소통 부진으로 인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자료조사에 대한 공부를 끝내고 흐름을 완성해 나갔다. 이후 발제문을 만들면서 함께 공유하고 수정했다. 다들 발제문을 처음 써보았기에 문장과 잘 정리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최종적으로 발제문과 PPT를 다 완성하고 조원들끼리 발표 연습을 하면서 캠프 준비를 했다. 발표 준비 기간이 조금 부족했었다.

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공통발제 내용과 개인 발제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발표하면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했다. 프로젝트 주제는 <우리 삶에 허구는 무엇일까?>로 모둠원들끼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허구의 믿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허구에 믿음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모둠별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참가자들의 소감을 듣고 평가를 받은 후 본 캠프 마무리를 지었다.

주제가 바뀌고 새로운 주제에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를 좁혀가는 것이 어려웠다. 각자의 주제가 정해지고 ‘협력’이라는 흐름으로 잘 뭉쳐질지 걱정이 있었다. 우리가 이해한 것을 발표 준비 부

족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발표에 흐름을 잘 잊지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넣지 못해 지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발표를 하면서 참가자들도 우리의 흐름을 잘 파악하셨고, 또한 우리 걱정과 달리 발표가 잘 마무리돼서 기분이 좋았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달하고 싶은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전체적인 발표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는 인싸여서 살아남았다 참가자 평가

모둠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됐나요?

① 매우 그렇다 33.3% ② 그렇다 66.7%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인간 진화에서 협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나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여태까지의 분위기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바라다 봤을 때, 협력이 중요시 되지 않으면 지금의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에 앞으로의 미래가 존재하려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누리는,만드는 삶이 잘 만들어지고 누리기위해서이다

-같이 어울리며 살기 위해

-허구의 믿음만으로도 응집해서 같은 목적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종족 보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별이나 개미도 군집을 이룰 수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듯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 중 어떠한 호르몬이 우세하는지 손가락 길이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던 것과 우생학에 대해 가볍게 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협력과 친화적 관계

-인류의 자기 가축화

-인류학을 '인싸' 라는 시쳇말과 엮어 풀어낸 중반 내용이 특히 좋았다.

-허구의 믿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마이크 좋지 않았고, 나머지는 좋았어요

-받아들이기쉽게 정리가 된 반면 단락마다 내용이 끝나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은점이 아쉬웠다

-허구에 대한 조별 토론이 무척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신기하고 새로운 내용이긴 했으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모둠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많은 분량의 자료와 어려운 논지를 쉽게 잘 설명해 주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은 파트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칭찬할만합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책을 깊이 있게 접했음하는 아쉬움도 남구요~^^
 -모두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열정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멋진 발표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싸여서 살아남았다 학년 평가

이 팀은 진짜 내가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팀이다. 맨날 회의 할때는 망했다 망했다 하더니 다 너무 잘했다.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개인 발표와 적당한 발표시간이 더해져 오히려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의미로 아쉬웠다.

'우리는 인싸여서 살아남았다'는 이번 인문학 주제 중 나에게 가장 생소하기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도 감이 안오는 주제였다. 그렇기에 더 신선하게 다가왔기에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나만 생소했던 것이 아닌 이 주제를 잡은 친구들에게도 생소한 주제였기에 발표 방향을 잡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다. 방향을 잡는데 오랜 시간을 소모한 탓에 모든 면에서 항상 뒤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발표는 재미있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처음 기대한 것처럼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서 좋았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다룬 것이 좋았다. 그치만 각자의 개인 발표의 흐름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았다. 수고했습니다.

『사피엔스』를 재미있게 읽어서 기대했던 주제 중에 하나였다. 우생학도 그렇고, 내가 믿고 있는 것도 허구의 믿음 중 하나라는 것도 느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급하게 준비하고 끝낸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야 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다. 참여형 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사피엔스 책을 엄청 재미있게 봐서 인간 진화팀에 기대가 컸다. 이 모듬 친구들이 초반에 좀 해맸던 것 같은데 발표는 정말 기대 한 만큼 재밌었다. 발표도 생각보다 많이 떨지 않고 잘 해주었다.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주어서 잘 들을 수 있었다. 인간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정리를 잘 해주었다. 사피엔스 책을 더 깊게 연구하여 발표한 느낌이었다. 진화를 하는 과정이 다양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 못

했다. 하지만 교체이론 교배이론 등 여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것 같긴하다. 그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삶도 성찰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알차게 잘 활용한 것 같다. 인간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주제 하나하나 다 재밌었고 루즈해지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났던 변화들에 대해 재밌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참여형 프로그램이 적은 편이었지만 발표 내용 또한 지루하지 않았다.

인류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흐름이 잘 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통발제 -> 협력 -> 우생학 -> 혐오로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우생학이 혐오랑 연관 지을 수 있으니 우생학하고 그다음 혐오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이크 때문에 내용 전달이 잘 안 된 게 아쉬웠습니다. 각자 개인 발제 내용들은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사피엔스 책을 읽고 들어서 그런지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도 사피엔스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새롭게 다가왔을 것 같다.

사피엔스를 우리 학년 필독서로 읽어서 그랬던지, 이해하기도 쉬웠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였다. 다만 우생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토론 같은 걸 해봐도 재밌었을 것 같다. 우생학이 마냥 나쁠까? 그런 질문이 떠올랐었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하지만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인류진화는 정말 흔하지 않고 신선한 주제였던 것 같다.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철학적 인간학) 라는 주제가 매우 흥미롭고 궁금했는데 결국 생물학적 인간학으로 바뀐 것이 좀 아쉽다. 너무 두루뭉술하고 어려운 주제긴 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어떤 발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주제 안에서 사피엔스의 진화 과정, 자기가축화, 우생학, 감염병이나 학살 같은 혐오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한 게 보였다. 그러나 작은 주제 마다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쉬웠다.

우생학에 대해 처음 접해서 신선했다. 하지만 다른 파트들과 이어가는 과정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아. 인간의 진화와 본능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발제 주제가 다 흥미로웠다. 특히 혐오 파트에서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나뉜다는 내용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대단하게 발전해왔는지 긍정적인 진화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인간진화팀 발제를 들으며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혐오나 우생학에 대해서 참가자들끼리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3. 대안교육 대안을 위한 대안

대안을 위한 대안 모둠활동 평가

모둠 구성 후 가장 먼저 함께 읽을 필독서 세 권 (대안교육 20년을 말하다,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가지 교육미신) 을 지정해 겨울방학 때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 밖에도 대안교육의 전반적인 흐름과 역사,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며 사전 공부를 했다.

대안교육이라는 주제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받았던 교육들은 어떤 교육인지 돌아보고, 6년간 직접 느껴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들의 시선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다.

주제 확정 후 본격적인 발제문 작성에 앞서 우리만의 의견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개학 전 제천간디학교 재학생, 졸업생, 자퇴생, 선생님, 타대안학생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양희창 선생님을 여러 번 만나보면서 함께 대안교육의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인터뷰 답변 내용과 전에 읽었던 필독서들을 토대로 3월부터 각자 세부적인 파트를 나눠 새봄이는 대안학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곱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현이는 우리 학교의 가치교육을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발제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진행상황과 발제 내용을 나누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정도 각자 발제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마지막 대안 파트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를 함께 작성하고, PPT를 만들어서 우리 내에서 함께 리허설을 해 보며 발표 준비를 마쳤다.

다른 팀과 달리 두 명이라는 점이 초반 회의 과정과 소통 과정에서는 편하고 좋았지만 발제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머릿수의 한계를 느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3-4명이 해야 할 분량을 뭉든지 두 명이 역할을 반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도 확실히 소통은 잘 되었고 준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본 캠프에서는 양쌤의 강의로 시작을 열고 이후 각자 준비한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 참여형 프로그램인 '지식교육,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조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안교육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인 만큼 학부모, 재학생, 타대안학생 등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참가자가 와 주어 하루종일 시끌벅적했고, 그 때문에 장내 참가자 관리가 어렵고 정신없었지만 호응이나 분위기가 매우 좋아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대안을 위한 대안 참가자 평가

1. 모둠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됐나요?

① 매우 그렇다(8) ② 그렇다(9) ③ 보통이다(1) ④ 그렇지 않다(1) ⑤ 매우 그렇지 않다(0)

2. 발제 내용이 공감이 되셨나요?

① 매우 그렇다(13) ② 그렇다(5) ③ 보통이다(0) ④ 그렇지 않다(1) ⑤ 매우 그렇지 않다(0)

3.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 양희창 선생님께서 해주신 간디학교를 창립할 때 이루어졌던 여러 과정과 난항을 담아 낸 이야기도 좋았지만, 나는 17학번의 '대안교육' 발제 중 재학생, 졸업생 인터뷰를 알차게 한 것과 '가치 추구 교육으로 인한 맹목적인 믿음' 부제와 '민주적인 학교?' 부제의 내용이 현재 집행부로서 특히나 공감이 되어 좋았던 발표였다.

- 대안학교 특히 제천 간디학교의 문제점과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1. 지식교육의 필요성을 논제로 삼았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찰이라 생각합니다.

2. 맹목적 가치추구 교육은 또 하나의 주입식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뜻 깊었습니다.

- '지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저녁 토론 주제로 잡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지식교육은 간디 커리큘럼에는 없는, 수학과 과학 등을 포함한 시험과제용 지식을 배우는, 협소한 의미의 지식교육입니다. 사회에 나와 대안교육에 대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에서 원하는 의무적인(?) 지식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보여요. 학생들로서는 적절한 문제제기였다고 봅니다.

-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의 심각한 재정과 지원적인 문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 가치 교육, 지식 교육, 진로에 대한 불안 등 학생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제천간디학교 대안교육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학비... 86만원...

- 학생들한테 설문과 인터뷰를 많이 한 것

- 지식교육에 관한 이야기

- 학비와 재정 및 교사 수급의 문제

- 대안교육의 7가지 문제점

- 우물 안 개구리

- 대안교육의 현실

- 양희창 선생님의 강의

4. 좋았던 점

- 학생들이 학교의 주체가 되어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시하여 개선안을 찾는 모습

- 학생 여러분이 몸담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찰과 고민을 세심하게 진행했다는 것 진지함

- 간헐적으로 알거나 궁금했던 내용을 깊이있게 정리해서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감사했

어요

- 발제 하나 하나가 나중에 하나로 모여져서, 대안학교의 과제를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 재학생의 본교 커리큘럼에 관한 성찰과 의문이 유익했습니다.
- 다른 주제들과 달리 발표자들의 경험이 많이 반영된, 인류학적인 연구라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좋았다
- 이해가 잘 되고 쉬웠다
- 같은 류의 기숙형 대안학교를 나눔으로서 발제 된 내용들이 무척이나 공감이 갔고 학생들은 알고 있지 못했던 비인가 대안학교 내의 시스템과 경제적 고난과 문제를 알 수 있어서, 이로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기에 좋았습니다!
- 재학생이여서 그런지 공감이 잘 되었다.
- 7가지 문제점. 정확하고 절실한 문제를 잘 지적했다.
- 발표를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았다
- 체계적인 내용전개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발표였다.
-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군의 인터뷰 자료와 결합하여 주제 발표로 모아내어 생동감 있었습니니다.
-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5. 아쉬웠던 점

- 그날따라 사람이 몰려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리가 부족해 조금 불편했다.
- 두번째 발표자 질문에 길게 답해 줬음 했는데 질문마다 너무 짧게 끝낸 거
- 더 많은분들 초대할수있게 미리 내용을 좀 숙지할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잠을 못자서인지 피곤함이 느껴져 안타까웠습니니다
- 마이크
- 직접 진행한 인터뷰인지(시기 명시 안 됨), 참고문헌 중 '수기'의 발췌 내용인지 모호 한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니다. :)
- 양 선생님의 기초강연이 좀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담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간디의 20년 역사를 정리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요.
-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
- 대안학교 자체로 통합 된 주제가 아닌 '제천간디'학교를 위주로 이야기 해줬던 것 같아 객관적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아쉽습니니다!
- 분임토론(지식교육) 주제를 좀더 다듬어서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 공감되는 부분이 좀 없던 것.?
- 마이크 .ㅋㅋ
- 비판적 시각에 집중한 발표였는데 장점과 문제점을 함께 정리했다면 좀 더 풍성한 내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 기동찬 대안들이 있었으면 더 재미있었을 듯 하다.

6. 모둠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

- 인문학캠프 주제에서 부터 과정, 발표까지너무 수고하셨고 그대들의 리얼한 삶을 응원합

니다

- 수고했어요
- 수고했어요 피피티도 재밌었어요
- 최고야□□□□□
- 사전 인터뷰 부터 내용 정리까지, 잘 정리하셨습니다.
- 반가웠고 유익한 토론이었어요. 6학년 선배들 훌륭한 논제를 선택해주고 솔직한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 오랜 시간 발표하면서 안 떨린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지요. 청중들의 어려운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하고 그들을 잘 리드하면서 진행한 것 같아요.
- 수고 많았어요
- 너무 수고 하셨어요
- 공적인 자리에서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을법도 한데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
-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 적은 인원으로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수고했어요.
- 부담없이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남게하는 멋진 프로그램이었다. 수고 많이 했어요^^
- 준비과정의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잘 이겨내고 멋지게 펼쳐낸 것 축하드립니다.형식면에서도 내용면에서도 훌륭했습니다.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 수고했고 잘 봤다고 전해주고싶다!!

7. 총 소감 (뒤늦게 넣어서 세 개밖에 받지 못했다.)

- 대안학교의 현재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내가 받아온 대안교육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음. 공감이 있음.
- 제천간디학교 학생으로 산다는 것, 교사로 산다는 것의 애환을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안을 위한 대안 학년 평가

대안교육 팀은 항상 보면 뭔가 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보여서 “애네는 그냥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뭐 별 탈 없이 100명 가까이 되는 참가자 앞에서 또박또박 발표를 잘 마쳤다. 대안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대안교육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참가자들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걸 보고 좀 멋지다 생각했다. 6년째 제천간디학교에서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 대안학교 팀이 발표한 제천간디학교의 부족한 점이나 필요한 것에 대해 공감했다.

이번 인문학캠프 주제 중 내 삶과 가장 연관된 주제였기에 가장 기대했던 주제였다. 다른 팀들은 3~4명이서 인문학을 준비했지만 이 팀은 유일하게 2명이서 준비한 팀이었기에 다

른 팀들보다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겨울방학 때부터 성실하게 준비했기에 다른 팀들보다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았다. 그래서 발제문이나 발표준비를 수월하게 진행한 것 같았고 본 발표도 완성도 있게 마쳤다. 참가자 대부분이 대안학교 학생, 졸업생, 학부모 및 선생님이었기에 많은 공감을 받았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참여도나 집중도도 높았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가자가 너무 많았기에 정신이 너무 없었다. 발표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자들 때문에 발표가 어수선 했던 부분이 아쉽다. 이것 외에는 거의 완벽한 발표였다. 수고했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는 흥미로웠던 캠프였다. 특히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양희창 선생님 강의를 들은 것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타 대안 학교 설명을 할 때, 자료조사도 좀 부실했던 것 같고, 발제가 뒤로 갈수록 제천간디에만 포함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천간디에 기본 지식이 없다면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한 참여형 프로그램 '지식교육, 필요할까?'에 과연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생각을 했지만,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서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 모듬은 2명이 진행해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발표 퀄리티도 좋았다. 준비 과정에서도 2명의 친구가 초반부터 인터뷰를 굉장히 열심히 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봤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평소에 하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대안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돌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안교육의 문제점등을 잘 알려주는 발제였다. 늦게 까지 발표를 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같이 배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프로그램은 정말 좋았다.

강의를 진행해주셨던 양희창 선생님이 현재 대안교육의 문제점을 유쾌하게 말씀해주셔서 좋았고 과거 대안교육의 문제점과 현재 대안교육의 문제점을 교차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앞으로의 대안교육이 어떻게 이뤄질지 암시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대안교육이라는 주제가 특히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인문학 캠프 내용또한 알차게 잘 구성해주어서 올 타임동안 지루할 만도 한데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 또 대안교육팀은 방학때부터 열심히 인터뷰하며 돌아다니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한게 보였다. 사람도 가장 많았었는데 부담 안 가지고 잘 발표해주어서 수고가 정말 많았을 것이다.

대안교육팀은 실제 학생들이 이야기를 담아놔서 공감이 잘 되었습니다. 팀원이 두명이라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잘 정리하고 발표까지 잘 한 것 같아 대단해 보였습니다.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너무 우리학교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대안교육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미리 '이 부분이 문제일 것이다'라고 예상해둔 부분들에서 조사를 통해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억지로 끼워맞추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인정하는 흐름이 좋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오랜기간 지내며 기존에 항상 문제라고 느끼고 이야기 해오던 내용이 많아 새롭지는 않았던 것 같다. 또 내용 자체가 '제천간디학교'에만 묶여있는 느낌이 들었다. 대안학교의 전반적인 문제 보단 '시골에 있는 기숙형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이었다.

우리 학교만 다룬 내용에 가까웠다는 것, 문제점 파트에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제법 있었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다. 조금 더 다양한 타대안학교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문제를 다루면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대안교육 팀이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처음에는 이 주제로 잘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특히 "2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대안 교육에 대해 다룬다?"이건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겨울방학부터 성실하게 책도 읽고, 인터뷰 질문지도 작성해 인터뷰도 하고, 학교 들어와서 희창 선생님과 재학생 몇 명을 만나 오프라인 인터뷰도 하는 등 성실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에는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발표 당일 희창 선생님 강의와 대안교육에 대해, 그리고 저녁 프로그램으로 기초기식 교육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재미있게 잘 진행했으며, 멋진 발표였다. 발표를 들은 후 대안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잘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캠프의 영향으로 내가 받아왔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며 생각해왔던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줘서 좋았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학비 문제 등 일곱 가지 문제점이 많이 공감됐다. 다만, 다른 주제와 달리 6년 동안 나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온 주제라 다른 주제에 비해 바라는 점이 많아졌던 것 같다. 조금 더 다양한 대안학교 사례를 소개해주고, 현재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일단 이 막대한 양을 들어서 해냈다는게 참 노을롭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6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발제를 준비한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쌤에게 강연 주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하기 어려웠겠지만, 좀 아쉬웠다. 인문학 주제와는 다르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인문학 발제와 강연이 잘 이어졌으면 어떨까 싶다.

이 날 타대안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티키타카를 할 마음에 기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발제는 대안학교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단 제천간디학교에 대한 발제였다. 우리 학교 관계자만 이해할 수 있는 발제였던 것 같다. 발표하며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지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타대안학생들도 좀 더 쉽게 이

해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한국 대안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 문제점을 한 번 잡고 넘어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아쉽다. 고생 많았습니다

4. 검찰개혁- 검찰을 검사한다

검찰을 검사한다 모듬활동 평가

주제가 정해지고 초반에는 검찰개혁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많이 헤매고 고민했다.

그래서 우선 기초적인 자료들을 쌓기로 하고 검찰이 뭘 하는 곳인지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며 ‘검찰이 멀쩡한 곳은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은 검찰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담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시작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리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문제는 검찰이다’를 읽었다.

이 두 책과 이후에 진행한 참여연대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얼마나 부패했고 왜 사람들이 개혁하자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이해했다. 그러며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간추리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며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눠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정들을 반복했다.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입교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인문학 캠프에서 할 이야기를 추려나갔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았고 검찰개혁이란 주제가 당장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 어떤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고민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조사했다. (이후에 그렇게 조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며 발표 흐름이 정해졌던 것 같다.) 조별 활동 자체는 함께 모여서 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생각이 들지도 않은 걸 보면 역할분담은 잘 이루어졌던 것 같다.

발제문 준비도 앞에서와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방학 때 조사한 내용들이 많았기에 최종 발제문 또한 방학중과 개학 후 초반에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조사해와서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기에 각자 조사한 내용이 많았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 이야기’ 파트는 다른 팀원이 한 주제에 대해 ‘내 주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지막에 나누고 검토할 때 말고는 서로 신경도 안 썼던 것 같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파트와 ‘변화를 위해선’ 파트는 파트마다 각자가 조금씩 나눠 조사해온 내용이 있어 이해도가 높았고, ‘함께 쓴 발제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각자 발제문에 대한 평가와 공유는 인문학 발표 전 가정학습에 이루어졌다. 이 전까지는 바꿔서 읽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대부분이었다. 확실히 꼼꼼히

읽고 피드백을 해주니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꼼꼼히 읽고 평가하는 과정이 재밌기도 했다.

발제문 제출이 끝나고 피피티는 앞에서 말한 듯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찰 이야기’ 파트는 각자가 준비해오고 확인 정도만 했다.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파트와 ‘변화를 위해선’ 파트는 각자 하나씩 맡아서 쓰기는 했지만 서로 쓴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지 피피티는 쓴 사람이 맡아서 하지 않고 다시 분배해 진행했다.

인문학 캠프 결과 앞에 발제문 준비와 피피티에 너무 치중해서 뒤에 발표 준비가 부족했다. 전날 급하게 대본을 짜고 발표 리허설을 해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평가는 발표에 한정된 것이고 전체적인 인문학 캠프 준비 과정과 발제문은 만족스러웠고 정말 지금까지 했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느낌이어서 좋았다.

검찰을 검사한다 참가자 평가

1. 어려운 주제를 모둠원간 협력 속에 잘 풀어주셨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훌륭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들었던 강의 중 가장 집중력이 좋았다. 체계적인 전개가 완벽했다. 검수완박 쟁취.
3. 접근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록하고 발표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둠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됐나요?

- ① 매우 그렇다(3) ② 그렇다(2)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졌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외국의 검찰 권한.
- 역대 정부의 검찰개혁의 시도에 관한 간략한 요약이 좋았음.
- 검찰개혁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를 학생들이 공부하고 알려준 점이 좋았습니다.
- 수사 기소 분리의 이유를 잘 설명해주었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 현재 주요 이슈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법률적, 역사적 관점과 시민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 우리나라 검찰이 어떻게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역사를 알려주어서 좋았다.

- 학생들과 기성세대가 함께 토론한 것 학생들이 흥미 없을 수 있는 검찰개혁 문제를 깊이 공부하고 발표한 점
- 주제의 특성 때문인지 청중 참여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가장 이상적인 검찰개혁과 경찰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비중이 있게 강조했으면 좋았겠다.
-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의 처리가 잘 될거라는 근거가 부족해보였다.

모듬별 질문 - 앞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이해가 될 것 같나요?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질 것 같다 5명 / 아직은 이해가 힘들 것 같다

검찰을 검사한다 학년 평가

준비한 만큼 완전 앞 뒤로 빵빵했던 내용들이 많았다.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각 정권 별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서 좀 이해가 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윤석열의 생애도 설명을 해주어서 나름 괜찮았던 것 같다. 오후 발제 시작하기 전에 더 킹을 잠깐 봤었는데, 재밌어 보여서 보고 싶어졌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팀에 반해서 참여형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다. 간단하게 토론을 진행을 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싶다.

이 모듬 친구들은 초반부터 엄청 열심히 해서 분량도 엄청나게 많았다. 평소에 검찰이나 정치 같은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친구들이 정리를 잘 해주어서 이해도 쉽고 발표도 재밌게 보았다.

뉴스에서 가장 핫한 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다. 뉴스에서 뭐라뭐라 하는데 거의 무슨 말 인지 몰랐는데 이번기회로 확실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알았다. 솔직히 초반 단어 설명은 많이 어려워서 졸렸지만 뒤의 발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과 검찰개혁에 관련한 발제를 할때 직접 와닿는 부분이있어서 제일 재밌었다. 시사영역이 하나 채워졌고 앞으로 사회에 나갈 우리에게 꼭필요한 발제였다.

앞으로 반년뒤면 성인이 될 우리가 사회에 나가 준비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검찰팀을 보면서 정말 머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 사회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사실은 검찰과 정치판이 다 해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었다.

자신들도 잘 몰랐을 정치 쪽 분야로 인문학 주제를 다루게 되어 참 공부를 많이했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잘 알고있을 주제일 텐데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부터 해서 미래 전망까지 살살이 다 알아와서 부모님들도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음

많은 양의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검찰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다른 나라와 우리는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준 것이 좋았습니다.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같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 발표해주어서 좋았다. 세미나 때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쉽고 더 잘 정리된 느낌이었다. 또한 대통령의 큰 사건들이 검찰과 연관되어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놀랍기도 했다. 다만 처음부터 흥미가 없었던 주제이기도 했고, 전혀 알지 못했던 주제라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뉴스, 기사에서 시끌시끌하게 매일 나오던 이름 '검찰개혁'. 정작 관심이 없으니 그동안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사실 검찰이 어떤 일을 하는 역할인지도 잘 몰랐고 나오는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인문학을 통해 검찰이 무엇인지, 얼마나 과도한 권력을 가졌고,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어서 매우 매우 도움되고 유익한 발제였다.

검찰개혁 팀은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을 텐데 딱 필요한 부분 알맹이만 쏙 골라 단계별로 잘 정리해준 것 같아 본 캠프 당시 발표를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기에 (생각 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검찰개혁 당시 뉴스판이 날 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목인, 정확히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조국이 왜 사퇴를 했는지, 우리 부모님은 왜 윤석열을 싫어하는지, 더킹이 왜 이슈가 되었는지 등 관심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역사, 정의, 윤석열에 대한 발표와 영화 '더킹'을 보고 검찰개혁의 대한 관심이 생겨났으며, 검찰에 대한 의식이 바뀌게 되었고, 그만큼 멋진 발표였다. 사전에 기대했던 주제였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서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여간 쉬운일이 아니었을 텐데 잘 정리하고 쉽게 풀어서 발표를 해주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현 검찰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뉴스에서 자주 들었지만 공부하기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주제를 다뤄줘서 좋았다. 쉽게 설명해주려 노력한 모습이 보였지만, 다 이해하기에는 내 배경지식이 너무 부족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재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어렵고, 자칫하면 모두가 졸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었다. 나 한번도 안 졸음!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쉽게 따라오지 못했을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퀴즈나 강조로 집중을 시킨 것이 좋았다.

아예 지식이 없었던 부분이라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 한국에 검찰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란 것만 알고 있었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도 1도 모르고 있었다. 뉴스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거의 검찰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나는 너무 흥미로웠지만 학부모들에겐 좀 지루했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다. 발표 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주제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다. 고생 많았습니다.

5. 언어-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모둠활동 평가

우리팀은 언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소주제를 정하고 방향성을 잡는 것이 어려웠다. 주제를 좁히기 위해서 <컨택트>, <나는 다른 언어로 꿈을 꾸다>라는 영화를 보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소통과 언어』라는 책을 통해서 ‘언어’라는 주제를 소통과 연관지어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소통이랑은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 그래서 영화와 책을 보며 각자 관심이 생긴 주제를 하나씩 정해 개별적인 공부를 진행했다. 그렇게 정해진 세 가지 주제가 **언어의 역사, 언어의 권력, 언어의 세대차이**였다. 준비하다 보니 각자의 주제가 연관성 없이 따로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언어의 역사 파트를 세계공용어로 바꿔, 영어의 국제화를 언어의 권력과 연관지어 세대차이로 마무리하는 흐름을 잡고자 했다. 하지만 발제문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고민 끝에 각자 주제를 다 연결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했고, 언어에 대한 여러 부분을 알려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모듬 활동으로는 특강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고려대학교에 찾아가 신지영 교수님을 인터뷰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언어 감수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외에 특별한 모듬 활동은 하지 않았고, 각자 공부한 주제를 공유하고 회의하는 시간이 모듬 활동의 주를 이루었다. 특히 발제문을 준비하는 과정보다는 언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다.

발제문은 총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첫 번째로 종은이가 언어의 탄생과 세계공용어를 맡았고, 은솔이가 권력의 언어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조은이가 언어의 세대차이에 대해 다뤘다. 각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문을 작성했고, 최소 일주일에 두 번은 모여서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자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온 뒤,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구체화 시켰다. 두 번의 리허설을 통해 정확한 시간을 체크하고 우리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등 발표 연습을 했다.

다른 팀들에 비해 외부 참가자가 적었던 편이라 큰 부담감 없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신지영 교수님의 코로나 확진과 시간 변동으로 인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라 참가자들의 의욕이 충만하지 않은 것이 힘들었다.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참가자 평가

> 참가자 평가

참여형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신지영 교수님의 강의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됐음에도 강의가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주제별 연관의 개연성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모두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됐나요?

① 매우 그렇다 3 ② 그렇다 2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 언어의 권력성에 대한 내용 기억에 남는다. 신조어를 새롭게 알게 됐다.
- 언어와 권력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고, 신조어 여러 개를 알게 되었다.
- 언어와 권력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언어 감수성이 떨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감수성을 높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 교수님 강의

좋았던 점

- 발제와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전문가 강연도 넣었다는 점
- 참여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다.
- 어려운 주제였는데 내용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좋았다.
- 신조어 알아가기

아쉬웠던 점

- 아쉽다기보다 마이크시설이 좋지 않아서 발표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 발표자 중 속도가 빨라서 발음의 부정확함이 더 드러난 경우가 있었다.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크게 개선될 것 같다.
- 신조어 발표 때 빠른 속도와 마이크 사정으로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아쉬웠다.
- 월요일에 진행이 되어 더 많은 참여자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 주제별 연관의 개연성 부족

기억에 남았던 (또는 좋았던) 참여형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3가지 다 좋았다.
- 언어감수성 테스트 빼고 3가지 다 참여했는데 그 중 존댓말, 반말이 가장 좋았다. 실습을 통해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 신조어로 문장 만들기
- 세계공용어 조별 토의, 존댓말/반말 토론, 신조어로 문장 만들기, 언어감수성 테스트
- 신조어발표

부득이하게 신지영 교수님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집중도, 특강 분위기, 강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 정의내용은 좋았다. 다시 특강으로 듣고 싶다.
-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들어서 집중이 덜 났지만, 특강을 넣은 거 자체가 전체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준 것 같고, 내용도 좋았다.
- 개인 사정으로 특강을 듣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 대면강의가 아니기에 아쉬웠지만 발표 내용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집중해서 들었다. 학교에 초청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 힘든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집중도 모두 좋았다.

모둠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을텐데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어서 기특했어요. 언어팀은 참여인원이 적어 힘빠지면 어쩌나 살짝 걱정도 되었는데 괜한 걱정이었고 서로 아쉬웠던 부분은 사회에서 다시 접할 기회가 많을테니 그때 맘껏 풀어보시길요. 인상 깊었고 감동받고 즐겁고 행복한 인문학 경험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 긴시간 준비하고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 준비과정 속 많은 어려움과 긴장을 이겨내고 협력 속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 축하드립니다. 준비와 발표, 행사진행 모두 훌륭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 모두 고생 많이 했고, 자랑스러웠음. 인문학캠프를 준비하고 발표하던 모습처럼 앞으로도 성장하길 기원함
- 수고하셨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학년 평가

마지막 팀인 언어팀은 월요일날 발표가 있어서 참가자가 절반 이상 빠져서 분위기적으로 조금 힘든 점을 안고 시작했던 것 같다. 발표 자체는 재밌고 유익했다 생각하는데 마이크가 조금 문제였던 기억이 좀 크다. 마이크 상태가 왔다갔다 하면서 발표자의 목소리가 자꾸 끊겨 집중이 어려웠다.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신지연 교수님의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많이 아쉬웠는데 재밌게 강의 잘해주셔서 즐겁게 잘 봤던 것 같다.

언어라는 광범위한 주제로 어떻게 인문학을 진행할지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걱정이 됐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주제를 잘 잡아 발표도 재밌게 진행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이다. 교수님 얼굴을 직접 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어 친구들은 모둠원 조합이 되게 신기했다. 어색한 친구들 끼리 모여 과연 잘 할 수있을지 생각을 했었는데 참여형 프로그램도 재밌었고 발제 내용도 재미있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혐오표현 등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자각해준 발제였던 것 같다. 무심코 지나갔던 말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 팀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쉽게 존댓말의 위험성(?)을 체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언어팀 발제는 프로그램 진행을 정말 잘한 것 같다.(물론 발제도 좋았다.) 또 외부강사 초청으로 풍성하게 발제를 채워준 것이 좋았다.

언어는 방대한 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고 어떤 기원이 있었는지 재미있게 풀어주었던 것 같고, 세대 차이에 따라 쓰이는 줄임말과 유행어과 달라진다는 것이 신기했다.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금 서로 간에 거리감이 느껴지도 했으나 돌아보면 우리도 나중엔 저렇게 되어버린다는 게 조금 슬펐다.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아서 진짜 좋았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반말, 존댓말 토론은 발제 내용과도 잘 맞아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언어의 세대차이 발제가 서론을 하다가 갑자기 결론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곁핥기식으로만 진행된 게 아쉬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차별이 담겨있구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신조어를 가지고 뜻을 유추해 문장을 만드는 활동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내용 자체에서 새롭거나 신선한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끊임없이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고, 다루는 내용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써오던 것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아쉬웠던 점은 언어의 권력 파트에서 존댓말과 반말만 다룬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걱정없이 밀고나갔으면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주었을 것 같은데... 옆에서 하는 걸 봐온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까웠다.

자칫하면 시간이 너무 빌 수도 있었는데, 참여형 프로그램이 중간중간에 많아서 루즈하지 않게 일정을 촘촘히 잘 짰 것 같아 좋았다. 하지만 준비된 프로그램에 반해 월요일이라 사람이 가장 적어서 아쉬웠다. 또 마지막 날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한계와 옆친데 옆친 격으로 신지영 교수님 강의도 줌으로 진행돼서 모듬 내에서 아쉬움이 클 것 같다.

내가 특히 좋았던 건 언어와 권력관계이다. 권력은 사회적 위치에서만 아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언어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발표를 들어 보니 하나하나 납득이 가는 근거들이었고 다시 생각해볼만한 거리가 많았던 것 같다.

+ 유독 마이크 문제와 전달력 부족함이 잘 보였던 것 같아 후반부로 갈수록 발표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사실 이번 인문학 캠프에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주제 '언어'. 관심있던 발표날 토요일을 양보해주고, 어쩔 수 없이 월요일을 선택했으며, 참여 프로그램이 많았던 모듬. 바표 당일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아 잘 진행이 될까? 걱정했다. 하지만 발표를 보면서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았다. 각자의 주제를 멋지게 소화를 해내고, 자칫 재미없고, 지루할 뻔 한 주제였지만, 자신만의 발표 개성으로 재미있는 분위기와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었다. 특히 참여프로그램 토론이 가장 재미있었다. 반말과, 세계공용어 토론. 살면서 언어의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 발표와 토론으로 언어의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신지영 교수님의 줌 강연. 코로나의 확진되어 오프라인으로 보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봤으면, 재미있는 강연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온라인 강연 또한 재미있었다. 언어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 신박하고, 유익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아서 재미있었다. 그냥 발표만 했었다더라면 분명 지루했을 텐데 참여를 잘 이끌어내서 재밌었다.

일단.. 사람이 너무 없어 아쉽다... 신지영 교수님이.. 왜 하필... 실물을 보고 싶었다... 기대 이상! 엄청 재미있었다. 마지막날에 활발한 프로젝트들을 넣은 것이 좋았던 것 같다. 언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 각자 주제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전환이 되었다. 언어가 가진 무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고, 언어를 더 배우고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수고했삼

◎ 자기평가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방연우

주제를 잡는 과정부터 발표하는 과정까지 쉬웠던 적이 없었다. 공산주의라는 주제를 들고 회의에 참여했지만 주제를 잡는 과정에서 나는 검찰개혁이라는 주제가 되었다. 정치라는 큰 주제라면 어떤 주제도 상관없었기에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나와 더 밀접한 주제인 검찰개혁으로 잡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제를 정말 잘 잡았던 것 같다. 같은 팀 친구들과 파티타카가 잘 되었어서 회의나 대화를 할 때 불편했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검찰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었던 나는 초반에 공부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뉴스를 봐도 영상을 봐도 책을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에 스스로 너무 답답했었다. 그래도 일단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같은 팀 친구들에게 발표하면서 머릿속에 조금씩 지식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졌다.

배경지식이 어느정도 갖춰졌을 때부터는 발표 준비를 했다.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자료는 넘쳐나고 말할 것도 넘쳐나는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다뤄야하고 어떻게 발표해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친구들과 충분한 회의 끝에 우리는 방향성을 잡았고 서로 열심히 준비한 덕에 좋은 발표가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하는 발표였다.

처음에 적혀있듯이 주제를 잡는 과정부터 발표하는 과정까지 쉬웠던 적이 없었다. 모든 과정이 힘들었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자료를 찾는 방법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발표를 준비하고 하는 방법, 여러 사람들과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내가 이번 인문학 캠프를 통해 배운 것들이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이담

인문학 캠프를 가볍게 생각했던 건 내 오만과 편견.. 인문학할 때 발제문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하는지도 몰랐고, 의자와 영덩이가 이리 오래 붙어야했는지도 몰랐다... 그 때는 죽도록 싫었지만 지금은 벌써 미화가 되어버렸다뽕힝

한 주제에 대해 깊이 공부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내가 살면서 다시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였다. 그래서 주제도 평생 공부해보지 않을 것 같은 주제를 골랐다. 역시나... 해보니 다신 해보지 않을 것 같은 경험이었다. 이렇거면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뭐 좀 남들보단 그 주제에 더 잘 안다고 자랑 좀 해보고, 한동안 그 주제로 내 생활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소중했다. 진짜 막 사람이 어느 종에 더 가까워 보이고, 동물만 보면 애는 자기가축화가 얼마나 됐을까 이려고 있고.. 찢든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게 전문가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떤 한 분야에 빠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다.

다들 인문학하며 팀플이 생각보다 큰 힘이 든다고 했는데 나는 전혀. 내가 더 미안하다. 나의 욕심에 끌려다녔다거나 나의 게으름에 속이 쥐어터져갔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사과한다. 물론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거나, 소통에 부분에서 아쉬움이 나올 때 남에게 욕을 하긴 했지만 그건 잠깐의 감정이었을 뿐이다 ㅎㅎ. 이 기회에 귀여운 친구들을 좀 더 알게되서 좋다. 난 참 너네가 사랑스럽단다

생각보다 공부하는게 재밌다. 이거 느낀거면 인문학 캠프 잘한거라던데.. 주제 좁혀가고 얘기하고 다시 좁혀가는 과정은 머리를 뜯고 싶고 좀 괴로웠지만, 자료찾고 공부하는 시간은 꽤나 흥미로웠다. 대학의 의미를 좀 느꼈달까. 책 읽는 것에 대한 의미도 진정 느꼈다. 전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머리로만 느꼈는데 진짜 공부를 이제야 해보니 책이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매체다. 어디 링크 안 찾아보고 좋은 책 하나 고르면 거기 다 들어있다. 옆에 있는 좋은 위인을 두고 왜 이리 노트북만 들여다 봤는지... 앞으로 책을 좀 더 긍정적으로 찾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인문학할 때 머리쓰는거 말고 입력만 되는 강연듣거나 책

읽기를 너무 하고 싶었다.

그 주제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긴 했지만 내가 진정 얻은 건 왜 사람이 공부를 하며 살아야하는지 같은거다. 진짜 배울 수록 아는 만큼 보였고, 더 나은 세상은 더 나은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몰라 무기력한 나에게 당장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는 좋은 충고를 주기도 한 것 같다. 중간에 이미 포기한 마음으로 해서 열심히 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다만,,, 공부에 관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힘으론 전혀 안될 것 같으니 누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고 나도 노력해보겠다.전체적인 인문학 준비하느라 양반 고생했고, 우리팀 그냥 사랑스럽고, 열심히 안했다고는 하지만 인문학 3개월동안 준비하고 마라탕 2인분 다 먹은 나 고생했다. 한층 더 성장한 '인간'되었길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김동현

키야~인문학 캠프가 끝나다니. 겨울부터 준비했던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준비할 때만 해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하나, 이게 무슨 공부가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끝난 지금은 전과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번 인문학 캠프에서 총괄을 맡았고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는 내가 냈다. 내 주제에 친구들이 함께 하겠다고 들어와 준 것이기에 초반부터 다른 친구들과는 부담감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모둠활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열심히 해 본 적은 잘 없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인문학 캠프에서 모둠 활동만큼은 좋았던 안 좋았던 제대로 경험해 봤다. 서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각자의 할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다들 지쳐 예민한 상태에서 힘든 회의를 한 적도 있었으며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등 인문학 캠프에서 지향하는 모둠 활동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겪어봤다고 생각한다.

긴 기간 동안 자신이 정한 주제로 깊게 파고들어 공부하고 발표하는 것이 3학년 교육과정인 논문 이후 오랜만이였다. 항상 그렇지만 과정은 매우 힘들고 결과는 한순간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나에게 꼭 어떤 것 하나만큼은 남겨주는 것 같다.

이번에 나에게 인문학 캠프가 남겨준 것은 뭘까 생각해봤다. ‘검찰개혁’에 대해 공부하고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별 생각도 없고 관심사도 아니었던 ‘정치’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구조나 국가권력기관의 필요성, 그에 따른 견제 장치, 또 대통령의 중요성이나 어느 한 부처 장관의 중요성 등등 공부가 끝난 후에도 어느새 뉴스를 찾아보고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를 알게 됐다.

거기에 더해 나 같은 경우는 사회체험학습을 인권연대라는 단체로 가게 됐다. 인권연대는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많은 일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

하고 발표한 인문학 캠프가 사회체험학습까지 이어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최은솔

1학년 때 인문학은 막연하고 부담스러운 교육과정이었다. 직접 보지 못해서 더 대단하고 큰 일처럼 느껴졌다. 작년에 처음 인문학 캠프를 참가한 후로는 기대와 설렘이 컸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잔뜩 기대한 채 시작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욕심도 사라졌다. 하나의 주제를 잡고 공부하는 일 자체도 어려운데 조원들과 소통하면서 맞춰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사소한 결정을 할 때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상상했던 만큼 좋은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지만, 무사히 마무리한 것에 만족한다.

인문학을 준비하는 동안 '누군가 알려주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본캠프에서 평소에 공부할 엄두도 못냈던 주제들에 대해 듣고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우리팀 발제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와닿을 수 있을지 고민했던 과정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터뷰 질문짜고 진행하는 것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 평소 관심을 가졌던 '언어'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최대한 좋았던 점을 생각해보려 했으나 힘든 점이 더 많았던 건 사실이다. 인문학 하면서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정말 끝이라니.. 행복하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임조은

아쉬운 점부터 이야기 하자면,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오픈으로 해서 사람들 받는 것도 다 같이하고, 타 대안 학교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타 대안 사람들도 잘 챙겨줘야 하지만 그것이 잘 안된 것 같다. 참석자 체크도 책임자를 정했지만, 결국에는 하는 사람만 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즐기는 느낌도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런 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나름 괜찮았다.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는 당일에 서울에 갔는데 당일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만, 당일에 올라가는 것은 준비가 됐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많다고 보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면 그 전날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는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좋았던 점을 이야기 하면 팀별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발

표를 다 기대했던 것 같다. 어떻게 준비를 했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어떤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실행까지 했으니 정말로 모두에게 수고 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총평은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다. 크고 작은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만족을 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도 조금은 놓치고 가고, 그랬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는 다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모두에게 수고 했다고 말하고 싶다. 수고 했어~@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조상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문학 캠프를 진행하며 정말 많이 성장했다.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를 밤을 새가면서 공부하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자칭 전문가가 되었다. 발제 구상부터 발표까지 정말 고생한 만큼 많은 것을 얻어 갔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양승혁

인문학 초반에 게으른 탓에 발표가 정말 걱정되었다. 다들 준비과정 내내 예민하고 지쳐있어서 많이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후반에 힘내서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캠프도 잘 마무리되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다들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했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유재훈

논문 이후로 외부 사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조사해 발제문을 쓰고, 팀원들끼리 모여 회의도 하는 등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 또한 있다. 처음 책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주제에 대해, 나 개인 주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신감은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인문학을 하면서 자료도 찾고, 관련 책과 논문도 읽으면서 주제에 대한 지식을 쌓은 다음 관련 전문인을 찾아 조연과 인터뷰 경험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다음의 기회에 혹은 활동에 큰 피드백이 될 것이고, 이번 활동으로 노하우도 많이 터득했던 것 같다.

캠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기분도 썩 좋진 않았다. 발제문 쓸 때도, 책을 읽으면서도, PPT를 만들면서도 기분 좋게 한 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캠프 당일엔 이런 기분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았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으면서 떨렸다. 그리고 재미있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발표를 마치고, 이제야 인문학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으며, 인문학이라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문학은 사실과 입증된 자료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영상과 기사, 뉴스, 자료의 출처와 발행 기관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생각한 것이다. 전에는 어떤 기관이든 닥치는대로 읽어왔는데, 이번 인문학에서는 옳은 말과, 사실과 입증된 자료를 다루는 기관만 찾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난 언론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문학 캠프는 굉장히 재미있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내가 공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이들도 공부한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는 등 이러한 환경은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았어도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오명민

겨울방학부터 인문학을 시작했지만 집에서 있어서 그런지 너무 집중을 못하고 줌으로만 계속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초반에 너무 나태해졌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부터 인문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우리의 방향성을 잘 못잡았다. 기본 지식들만 쌓아가고 있을 무렵 인터뷰를 가게 되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나갔고 그 후부터는 훨씬 집중을 잘 해서 발제를 완성해 나갔다. 영상도 같이 만들었는데 일정이 빡빡해서 인문학 발표하기 전까지 영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ppt의 대본도 못만들어서 발표가 살짝 아쉬웠다. 우리는 거의 인터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꽤 많이 했다. 그로 인해서 인터뷰 실력이 더 늘어난 것 같다. 그리고 인문학을 통해서 사회를 조금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김송새봄

인문학 캠프... 시작 전에 교육과정 이름만 들어서는 인문학이 뭔지,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도 감이 안 잡혔는데 어느덧 이렇게 본 캠프를 마치고 인턴십을 하며 평가를 쓰고 있다니. 한 가지 주제를 진득히 붙잡고, 인터뷰도 다니고 통계도 내 보고 여러가지 고민도 해보며 나의 언어로 만들어가고 발표까지 하는 과정을 논문 이후로 오랜만에 경험해봐서 그런지 나는 마치 3년 전보다 퀄리티가 더 발전한 논문을 한 번 더 쓰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본

캠프 2주 전부터 거의 매일 밤을 새며 발제문을 썼던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나는 내가 궁금했고 원하던 주제를 하게 된 만큼 인문학이 정말 재미있었다. 체력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이 주제가 아니었다면 그만큼 재밌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인문학 덕에 글 쓰는 방법과 말 잘하는 능력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다. 캠프 전체 총괄로써도 신경 쓸 것이 많았는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엑셀 명단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었다고 본다.

지나고 나니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처음 의도처럼 내가 지나온 교육에 대해 돌아본다기보다는, 팀이 꾸러지고 모둠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점점 비판적인 시각으로 발제문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대안교육의 이면, 즉 내가 느낀 좋은 점도 함께 발제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현장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봤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후회는 없다.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무사히 잘 전달했고, 본 발표를 마쳤을 때 여기저기서 선물도 받고 발표 너무 잘 했다고 칭찬받으니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매우 뿌듯하고 엄청난 쾌감이 드는 하루였다. 나에게 이번 인문학 캠프는 '느끼는 것을 언어로 풀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양민혁

정말 길면서도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작년 6학년들 인문학 캠프봤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 인간진화 팀에게 미안한 것이 많아 찢리지만 그만큼 이해해주고 따라줘서 정말 고마웠던 것 같다. 다들 고생 많았어 졸업식 날까지만 힘내보자!!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이하은

솔직히 우리 조는 참 많이도 헤맸다. 교회에 1도 모르던 애들이 무작정 모여서 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없이 시작했던 것이 큰 것 같다. 주제를 바꿀까도 고민해보고 방향성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해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어찌저찌 잘 끝났다. 헤매느라 늦게 시작한만큼, 자료나 공부의 양은 확연히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무 깨달음 없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들 각자가 느꼈던 지점이 분명히 있고, 인문학의 전후 생각이 바뀌었을 것을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이 주제로 잘 선택했구나 싶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정도고, 팀플은 정말... 힘들었다. 선배들의 "논문 한번 더 쓰고 인문학 안 하고싶다"의 속뜻은, '팀플 말고 그냥 혼자할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논문을 한번 더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얻은 배움도 있었겠지... 하고 자신을 다독여본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이종은

다시다난했던 인문학 캠프가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준비과정에서 의욕을 가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기에 캠프가 끝나고도 그에 따른 큰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번 인문학 캠프는 하나의 과제, 일처리같은 느낌을 크게 받았다. 그렇기에 지적 배움 향상보다는 어떤 힘든 일도 다 겪을 수 있는 끈기, 자신감 등으로부터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마무리되고 나니 기분 좋다. 아직은 잘 몰라도 분명 삶 속 어딘가에 이번 몇개월가량 고생했던 흔적의 성과가 보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여전히 선정과정에서 내가 컨택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으면 훨씬 더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안희

인문학이 시작되고 주제를 정하는 것도 막막했고 주제를 정하고 나서도 공부를 하며 ‘이 주제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맞을까?’하는 고민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흥미가 생겼다. 평소 정치나 검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에 검찰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얻는 정보들이 많았고, 검찰을 조사하며 그동안 이해하기 힘들었던 정치도 조금씩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는 내용보다는 그냥 하나의 교육과정을 완수했다는 것 자체에서 얻는 부분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교육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얻는 것들이 많았다.

같이 검찰개혁을 공부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평소에는 다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몰랐는데 이번 인문학을 준비하며 3명만 모여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새롭게 알아가는 내용들이 많다보니 발제문과 공부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다만 발제문에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런지 막상 발표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해 처음 목표였던 ‘이해하기 쉬운 검찰개혁’은 실패인 것 같다.

그래도 인문학까지 마무리하고 나니 6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조사하고 나누고,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알 것 같다.

인문학 캠프를 마치며 - 박선영

인문학캠프를 다시 할 바에 차라리 논문을 두 번 쓰는 게 낫겠다. 그만큼 힘들었다. 인문학 자체를 끝냈다는 것은 행복하고 이 힘듦을 다 견뎌낸 것이 뿌듯하지만 개신교팀 발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미리미리 해봤으면 이 정도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더 많은 이들을 인터뷰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급하게 발제문을 작성하다 보니 다른 팀원 발제문에 신경을 못 썼다는 점도 아쉬웠다. 서로서로 피드백을 봐주었으면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는 발제문이 나왔을 것 같다. 우리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수주의 개신교도들, 왜 그런대? 발제가 제일 아쉽다. 대형교회에 대한 것이나 좀 더 깊게 파야 할 것들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

힘들긴 했지만 얻은 것들도 많다. 글쓰기가 많이 늘었다. 모르는 단어들과 어려움 말들을 해석해내는 것 또한 많이 늘었다.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모으고 글로 정리하는 어디서든 필요하니까 배운 것들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인문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어느 곳에 가도 조별과제를 할 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느껴서 어딜 가든 조별과제는 자신 있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한 주제를 깊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고 좋았다. 전혀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는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다. 처음 내가 개신교 주제를 하고자 했던 것은 친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는데 인문학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멀게만 느껴졌던 친척들과 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